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1호 [무계 제25444호] 주체 105 (2016)년 10월 27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김정은 김일성 - 김정일 로동계급의 시대적 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 105 (2016)년 10월 25일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적전을 합차게 다그치고있는 혁명적양양의 시기에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가 열렸습니다.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로동계급의 단결된 위력과 필승의 기상을 세계에 과시하고 직맹조직들의 기력과 전투력을 더욱 높여 로동계급과 전체 직맹원들을 새 시대의 만리마진군으로 총결기시키는 역사적인 계기로 될것입니다.

나는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선직업총동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력적인 명도와 크나큰 믿음속에 창립되고 끊임없이 강화 발전되어온 당에 충실한 로동계급의 대중적정치 조직이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위력한 전투부대입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지위와 역할을 중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당을 창건하신데 이어 광범한 로동계급을 망라하는 유일적인 정치조직인 북조선로동조합총련맹을 결성하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직맹동맹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로동계급이 혁명의 전위부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명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의 근로단체건설사상에 기초하여 직맹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옹호자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침을 마련하여주시고 직맹조직들이 정치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몸소 대중운동의 봉화를 지펴주시어 사회주의건설에서 집단적, 현대적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였습니다.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설 때마다 제일 먼저 로동계급을 찾으시고 로동계급에게 의거하여 혁명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 현명한 명도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억세게 키우고 역사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직맹동맹이 어떤 변색도 모르고 오로지 총정의 한길을 걸어 오게 한 은혜로운 손길이었습니니다.

로동계급과 직맹동맹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혁명적의리를 지니고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앞장에서 헤치며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천리마의 기상으로 전후 짧은 기간에 재더미만 남았던 이 땅위에 사회주의공업국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웠으며 고난의 행군과 반미대결전의 엄혹한 시기에도 사생결단의 각오와 의지로 투쟁하여 자위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지금 조국방 이르는 뜻바다에서 이룩되고 있는 세상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사변들과 전화위복의 기적들에는 인민군인들과 어깨결고 당의 명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애국충정의 피와 땀이 뜨겁게 솟아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날이나 준엄한 날이나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당과 수령의 부름따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애국의 열정과 지혜를 다 바쳐온 전국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 직맹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열렬한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 노도와 같이 일떠섰습니다.

오늘의 전인민적총진군에서 혁명성과 조직성이 강하고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로동계급이 마땅히 주도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조선로동계급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었습니다.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는 부름에는 로동계급을 전면에 내세워 거창한 사회력사적변혁들을 이룩하고 준엄한 난관을 타개하여 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동계급중시사상과 명도를 그대로 계승해나갈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와 결심이 어려어있으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로동계급이 수령님의 로동계급, 장군님의 로동계급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을 바라는 커다란 믿음과 기대가 응축되어있습니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총진군대오를 앞장에서 이끄는 기관차가 되고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갈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입니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당과 인민의 크나큰 믿음을 명심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장성강화 되어온 주체혁명의 선봉부대, 나라의 맡아들답게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입니다.

로동계급이 자기의 성스러운 시대적임무를 다해나갈수 하기 위하여서는 직맹동맹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여야 합니다.

직맹동맹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며 주체혁명위업수행으로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정치적무기입니다.

조선직업총동맹은 전 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총적투쟁과업으로 끌어들이고나가야 합니다.

우리 혁명은 당과 군대와 광범한 근로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전당과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고 청년동맹과 직맹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습니다. 당과 군대와 근로단체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여기에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총극적승리가 있습니다.

직맹동맹은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화, 정예화를 실현하고 그의 핵심적, 선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한 근본담보로 됩니다. 우리 사회의 선진부대이며 핵심력량인 로동계급이 기관차가 되고 본보기가 되어 앞장에서 이끌어 나갈 때 모든 사회성원들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 변혁하는 거창한 위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어 나갈수 있습니다.

직맹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명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직맹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전 동맹을 오직 김일성-김정일주의만이 차지하는 사상적 순결체로, 당의 유일적명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직맹동맹의 지도사상은 오늘도 백일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입니다. 직맹동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지침으로 하여 동맹건설과 활동을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직맹동맹건설사상과 이론, 불멸의 명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님들의 유혼을 생명선으로 끌어들이고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직맹동맹은 조선로동당의 명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은 우리 당의 사상과 로선, 정책에 립각하여 동맹사업을 작전하고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은 동맹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에 제때에 보고하고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당의 방침, 지시를 허부말단애 이르기까지 즉시에 전달침투하며 최단기간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부모의 뜻을 말자식이 먼저 알고 따르듯이 당의 의도와 요구를 나라의 맡아들인 로동계급이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당중앙결사옹위는 조선로동계급의 계일생명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로동계급의 대는 바뀌어도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충실성의 전통, 일심단결의 력사는 영원히 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전화의 불비속에서도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굳은 신념을 안고 전쟁승리를 위하여 굴함없이 투쟁한 군자리와 박원의 로동계급처럼, 천리마대고조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한 강선의 로동계급처럼 언제나 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당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야 합니다. 종파분자들을 전기기로 처넣겠다고 웨치며 당을 옹위해나섰던 전후의 그 정신으로 당의 사상과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장하며 당의 방침관철에서 나타나는 온갖 반당적이며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추호도 무파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로동계급의 무의 주먹으로 단호히 쳐갈겨야 합니다.

동맹조직사상생활지도를 강화하여 모든 직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동맹조직사상생활은 동맹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 사상교양의 학교이며 조직적단련의 용광로입니다. 직맹조직들은 조직사상생활지도를 주선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직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은 당이 제시한 5대교양을 힘있게 벌려 모든 직맹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의 사상정신적봉도를 전면적으로 갖춘 사상과 신념의 강자, 열렬한 애국자, 계급의 전위투사, 고상한 도덕의 체현자로 키워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은 혁명적근인정신과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직맹원들속에 당의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깊이 심어 주어 그들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한손에는 혁명의 총대를, 다른 한손에는 계급의 미치를 억세게 틀어쥐고 언제나 긴장되고 통원된 태세를 견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급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직맹원들이 자본주의독소에 걸대로 오염되지 않게 하며 모두가 로동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건전하게 혁명적으로 살며 투쟁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대상의 준비 정도와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하여야 합니다. 당의 침입식사상사업방법을 적극 구현하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사상개조를 다그치며 온 나라에 대고조열풍이 나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맹교양기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직맹조직안에 세워진 교양체계를 실속있게 운영하며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 중요한 정책적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선전선동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야 합니다.

직맹원들에 대한 조직생활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는 데 기본을 두고 혁명과업수행과 결부하여 동맹조직생활지도를 짜고들어야 합니다. 직맹원들속에서 자각적인 조직생활기풍을 세워 그들이 언제나 조직에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며 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맹생활총화의 수준을 높여 생활총화가 직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은 동맹조직규율을 강하게 세우고 조직생활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야 합니다. 직맹조직생활을 동맹규약과 동맹생활규범의 요구대로 진행해나가며 직맹원들에 대한 조직적봉제를 강화하여 조직생활에서 유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

김 일 성 - 김 정 일 로 동 계 급 의 시대 적 임 무 와 직 맹 조 직 들 의 과 업

1 번 에 서 계 속

직맹 조직들은 사회주의건설에 펼쳐나선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정신력에 불을 지피기 위한 정치사업, 선전선동사업을 활발히 벌려 대중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로 고무추동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생산물적전을 드세게 벌려 맡겨진 계획과제를 매일, 매월, 매 분기마다 이겼듯이 완수하며 과학과 교육, 보건과 문화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혁신의 창조자, 영예의 만리마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기 일터를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의 전방초소로 여기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다지고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부들을 더 많이 창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우리의 것이 제일이고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자력쟁쟁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원료, 설비의 국산화와 생산기술공정의 현대화를 대담하게 실현하며 사회주의문명을 최상의 수준에서 창조해나가야 합니다. 조선로동계급의 자존심과 배짱으로 모든것을 자기 손으로 남들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수입병이라는 말자체를 없애버리고 민족의 슬기와 조국의 명예를 빛내어야 합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자강력의 강자, 지식경제시대의 주인공이 되자면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성에 현대과학기술을 결합시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모두가 지식형의 근로자, 과학기술인재가 될데 대한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원격교육체계를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열심히 학습하며 현대과학기술과 문화지식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합니다. 경험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파파하고 새로운 발명과 가지 있는 기술혁신으로 자기 단위의 과학기술발전과 지식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앞장에 서도록 떠밀어주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직맹 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속에서 대중체육과 대중문화예술활동을 정상화하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로동계급의 새 문화를 창조하고 사회에 약동하는 기백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대중운동은 집단적혁신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위력한 수단입니다. 직맹조직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쟁운동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 28호보병기대창조운동과 좋은일하기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진행하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사회주의건설에 자기의 열정과 지혜를 다 바쳐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전략적과업을 수행하는데 중심을 두고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목표를 높이 정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벌려 대중운동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속에서 대중운동의 목적과 수행방도를 옳바로 인식시키고 궁극적 모범을 널리 일반화하며 총화와 평가사업을 잘하여 대중운동에 대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관심과 열의를 북돋아주고 사회적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공업과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로동계급과 직맹조직들에 내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우리 당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노선과 방침을 깊이 체득하고 그 실현에 앞장서야 합니다. 반미자주화,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권을 위한 남조선로동자들과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남조선로동운동단체들과의 연대협력을 실현하여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직업동맹은 우리 당의 대외정책적리념과 원칙을 옹호하고 구현하며 자주와 평화,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을 고무하고 여러 나라 직맹 및 로조단체들, 국제로조기구들과의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늘이고 세계의 자주화를 앞당겨나가야 합니다.

직업동맹앞에 내서는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각급 동맹조직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직업동맹지도기관들은 든든히 꾸리고 지도기관 성원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직맹지도기관에는 직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뿐아니라 로동현장에서 일하는 핵심적인 직맹원들을 많이 망라시켜야 합니다. 직업동맹지도기관들은 동맹조직앞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분공을 주어 그들이 활발히 움직이게 하여야 합니다.

직업동맹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중심고리는

초급단체를 비롯한 직맹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직맹초급조직들은 직업동맹앞에 제시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기본전투단위입니다. 직맹초급조직들은 직맹원들과의 사업에 선차적 힘을 넣어 모든 동맹원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당정책관철을 적극 불려일으켜야 합니다. 핵심, 열성직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한사람이 열사람, 열사람이 백사람을 교양하는 방법으로 대중을 교양조하며 동맹조직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사업과 생활에서 결합이 있는 동맹원이라 할지라도 품들이 교양하고 진심으로 도와주어 모두가 시대의 벽산 승결에 실장의 박동과 발걸음을 맞추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성의 모범단체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과 경험교관운동을 널리 조직진행하여 모든 직맹초급조직들이 활력있게 움직이고 전 동맹이 뚝개 하여야 합니다.

도, 시, 군직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도직맹위원회들은 직업동맹의 지역지도단위로서 정연한 동맹생활지도체계를 세우고 산하동맹조직들에 대한 장악지도를 강화하여 직맹조직들을 산정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 군직맹조직들은 동맹내부사업과 기초조직들과의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어 동맹조직들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직총중앙위원회는 당의 명도밑에 직맹사업전반을 작전하고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하는 참모부입니다. 직총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명님들의 유훈과 당의 방침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모든 사업을 그 관철을 지향시키며 부서와 과들사이의 배합작전과 협동작전을 짜고들고 아래에 대한 장악지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의 전투력과 역할은 동맹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직맹일군들의 수준과 사업방법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직맹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직맹일군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며 자기 부문에 대한 위대한 수명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환히 꿰고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직맹일군들은 동맹사업실무에서 막히는데가 없고 사업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조직개발하는 유능한 정치일군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과학기술을 비롯한 다방면적인 지식과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지니고 대중과 허물없이 어울리면서 그들을 만리마속도창조로 불려일으키는 대중공작의 능수가 되어야 합니다.

직맹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식사업방법을 깊이 체득하고 실현에 구현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군중교양과 대중지도의 숭고한 모범을 거울로 삼고 모든 일을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직맹일군들은 입상적으로 아래에 내려가 군중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직맹일군들은 당의 방침을 아래단위에 되받아넘기거나 동맹사업을 회의와 문서로 대치하는것과 같은 낡고 뒤떨어진 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야 하며 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품을 들여 열매를 거두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이 직업동맹사업을 중시하고 적극 밀어주어야 하였습니다.

당조직들은 당에 충실하고 대중의 신망이 있으며 로동속에서 단련되고 실무적으로 준비된 능력 있는 사람들로 직맹일군대렬을 잘 꾸려야 합니다. 직맹일군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언제나 자기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로동현장에서 일하는 동맹원들 가운데서 당에 대한 충실성이 높고 전망성있는 대상들을 직맹간부후비로 장악하고 사업을 통하여 단련시키며 양성기관에도 보내어 체계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은 높여주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메 시기 제시되는 당의 방침을 직맹조직들에 제때에 알려주어 직맹조직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사업하고 활동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직맹조직들이 사업을 주동적으로 작전하고 배심있게 밀고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이 직맹조직을 제쳐놓고 사업을 도맡아하는 현상을 없애며 직맹일군들에게 일감을 대담하게 맡기고 자기 힘으로 해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의 사업조건을 보장해주며 직맹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평가도 해주어 그들이 궁지와 영예감을 가지고 마력을 내어 일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이 분발하여 일떠서고 직맹조직들이 활력에 넘쳐 들끓을 때 우리 혁명대오의 위력이 한층 강화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될것입니다.

나는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 직맹조직들이 위대한 수명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을 남김없이 떨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동위원장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열렬한 축하와 응원으로 되는 인사말을 드렸다.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로동계급의 단결된 위력과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는 뜻깊은 게기도 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인민공화국전선위원장,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인도네시아 운수료조련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 오스트리아 로조련맹 라인볼릭 편방비서,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르카지지역준비위원회 공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조선의 로동계급이 나라의 부강번영과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투쟁으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함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들은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지적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대한 연합토론회 네 팔에서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의 사업총화보고에 《5. 당일 강화발전전을 위하여》에 대한 련합토론회가 조선로동당장년 71세대에 즈음하여 3일 내왕의 까뜨만두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당건설명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토론회장 모셔져있었다. 토론회에는 네팔의 여러 정당, 단

체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당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지적투입과 혁명적단결을 이룩하여 조선로동당을 백승단을 떨치는 불멸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 시키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업적을 영원불멸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네팔공산당(마오바디) 중앙위원회 국제부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였기에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혁명적성격은 더욱 굳건히 고수될것이며 조선인민은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에 커다란 힘과 고무를 안겨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이 위문전문을 보내어왔다

필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북도 북부지역에서 관공로 인명피해와 수재인이 발생하고 중요한 경제 및 사회하부구조와 방대한 면적의 농경지들이 파괴되었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였습니다. 나는 모잠비끄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조선인민과 자연재해를 직접 당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위문의 뜻을 표합니다. 나는 이 피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모잠비끄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연대성을 표시하면서 200일전투기간에 피해의 후파를 상파적으로 그리고 시급히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 필리페 자쉴루 뉴씨 2016년 10월 17일 마루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9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류정안과총합병원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라오스의 통신, 신문 《비엔티안 타임스》, 세계잡지문 《리보발레르》, 로씨야의 스푸트

니크방송, 인터넷통신 브라우 다, 우, 인터넷잡지 《멜리우》와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원, 로스토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원,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원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월란트반제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소식물》이, 단경대혁명사적지기념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내발신문 《아르판》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내발기자협회, 내발조선선선협회 인터넷홈페이지가 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본사기자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새시대의 만리마진군으로 총결기시킨 역사적인 대회

조선 직업총동맹 제 7차 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었다



조선직업총동맹제7차대회

【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 따라 온 나라 천만군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에 노도와 같이 떨쳐 일어나 혁명의 최전선기를 일어나고있는 격동의 시기에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가 25일과 2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백두산일세위인들의 주체적인 직업동맹건설사업과 업적을 민애에 빛내이며 당중앙집사총회, 총실들의 전통을 역세게 이어가는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입신단결된 위력과 필승의 기상들을 세상에 과시하고 직업조직들의 기동력과 전투력을 더욱 높여 로동계급과 전체 직명원들을 새시대의 만리마진군으로 총결기시키는 역사적인 계기로 된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당중앙의 현명한 명도명령에 조선직업총동맹이 제6차대회이후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로동계급의 대중적정치조직으로 더욱 강화되어온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총화하고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성판형에서 모든 직명조직들이 당의 믿음직한 방주자, 용호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논의하였다.

대회장인 인민문화공원은 우리 로동계급을 주체혁명의 선봉부대, 나라의 만이들로 키워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짐없는 경외의 정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직업동맹 강화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총직하게 받아들여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정으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교하게 모셔져 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뉘어 있었다.

주석대에는 우리 로동계급의 애국충정적 영웅적위업이 깃들여있는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형성되어있었다.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라는 글씨가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또한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 화하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입신단결을 끝까지 용위》라는 구호들과 글발들이 나뉘어있었으며 직업동맹기발들이 드리워져있었다.

대회에는 각 도직명대표들이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당, 행정, 무력기관 인공들과 재일본조선인공직전동맹대표단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김기남동지와 리일한 당중앙위원회 부장, 직총중앙위원회 책임인공들, 모범적인 직명인공들, 직명원들이 주석대에 나왔다.

또한 조한주 재일본조선인공직전동맹대표단 단장이 주석대에 나왔다.

《김정은장군안거》가 주악되었다. 대회에서는 집행부를 선거하였으며 시가부를 임명하였다.

1.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2.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집사총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3. 조선직업총동맹 규약개정에 대하여

4.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지도기관선거에 대하여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었다.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시대적임무와 직명조직들의 과업》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달하였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직업동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입력화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인체로, 당의 사상과 명도에 끝없이 충실한 수명조직사공위의 결성체로 만들어 직업동맹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항구적으로 뛰어넘고 나가야 할 불멸의 대장을 받아안은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크나큰 격정에 넘쳐 《만세!》의 환호를 리쳐올리었다.

대회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 로동단체 및 국제기구들, 정계, 사회계의 인사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온에 대하여 소개되었다.

또한 6.15공통선언선전 남측위원회의 로동부에서 축전을 보내어온에 대하여 소개되었다.

첫째의 정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를 무영직 직총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당의 전투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천만군민이 함복도 북부피해부구권에서 전위위부의 기치를 창조해나가고있는 시기에 로동계급과 직명원들, 직명인공들은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었다.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시대적임무와 직업조직들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직업총동맹 제6차대회 결성판형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직업동맹이 백두산일세위인들의 탁월한 사상과 명도를 받들어 영광스러운 수령의 직명동맹, 당의 직명동맹으로 더욱 강화되고 역사적의 존엄한 폭풍을 맞받아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혁명적대진군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온 긍지높은 나날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의 총직임무에 맞게 직업동맹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전위적과업을 제시하시어 우리 로동계급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핵심부대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게 하시었다.

어버이수명님의 직업동맹건설사상과 명도를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신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선군시대 직업동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피곤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제기하시어 로동계급과 직명원들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들고나가기도록 헌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우리 로동계급을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내세우시어 로동계급의 지위를 최상의 정지에 올려세우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한평생 우리 로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나라의 만이들을, 혁명의 핵심부대로 역세게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적업적이 더욱 빛나게 되었다.

보고자는 총결기시킨 위대한 당의 명도명령에 직업동맹사업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직업동맹이 당의 유일사상체제, 당의 유일적명도체제가 확고히 선 로동계급의 대중적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된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직업동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제와 당의 유일적명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 직업동맹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보란찬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기로 정적적으로 명도하시었다.

어버이수명님께서 모든 직명조직들이 로동계급과 직명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대로 든든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당의 방침을 무조건 준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강철같은 규율이 전 동맹에 확립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사상과 명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을 직업동맹건설과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규정하시었고 실천을 위한 피곤실천적문제들을 뚜렷이 명시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업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명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었고 그 본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조선직업총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방주자, 용호자로 강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업동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사랑하여주시고 강화발전시키신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대중적정치조직이라는것을 동맹규약에 명문화하고 수령의 직명조직, 당의 직명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는것을 직업동맹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도록 하시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역사적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조선직업총동맹대표자에서 신의주혁명의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인민화하게 모시고 장엄한 최후를 맞이했으며 지난 3월 남양도 미제와 박근혜역적제당이 정세를 전횡정횡으로 몰아가고있던 때에 수시명명의 직명인공들과 직명원들이 조선인민군 입대, 목숨을 걸고서 헌명해나가는 우리 로동계급과 직명원들의 수명전투정신으로 뚜렷한 과시도 된다.

성과는 다음으로 직업동맹이 우리 당의 총로선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기본과업으로 뛰어넘고 힘있게 밀고나간것이다.

직명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교린조직들을 완히 계승해나가기 위한 과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였으며 혁명전투양상을 강화하여 직명원들이 백두의 혁명정풍을 전진시켜 용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도록 하였다.

5대교양사업을 직명원들의 투쟁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공세적으로 진행해나감으로써 그들을 백두산일세위인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김정일애국주의로 끈끈히 무장하며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 투철한 단결체제고의식과 고상한 도덕윤리를 지닌 주체혁명의 선군혁명투사들로 준비시켰다.

직명조직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로동계급과 직명원들을 과학기술보급실운영에 적극 참가시키고 원격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와 기술전수체제에 밀려서 기술가능수준과 현대과학기술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기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자기 단위의 기술발전이 적극 이루어질수 있게 하였다.

과학연구부문의 공중, 기업소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사이의 기술혁신도전회와 경쟁발표회, 제품전시회, 인민경제 중요단위들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들과사회의 경쟁을 널리 조직하여 과학자, 기술자들과 광범한 근로자들이 첨단과제연구와 규율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업동맹건설사상과 명도명령을 생명선으로 하여 모든 사업과 활동을 진행하고 각급 직명조직들을 수명전투정신으로 단결화하고 사상과 승결, 발걸음을 같이하는 입신단결의 대대로 꾸려나갔다.

직명조직들에서는 모든 직명인공들과 직명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의 함께 계신다는 철칙같은 신념을 심장마디에 조이마고 공수신대양군을 영원한 태양의 정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고 정비보수하며 수령의 유언관철전에 한걸음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였다.

직명조직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오를 항상 모자이크하며 《백두산에 오로시여》를 주내에 높이 모시고 집세위인들의 명도사적이 깃들여있는 중앙로동사회관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재건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세출의 위인상과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깊이 빛내어나갈수 있게 하였다.

동맹을 만나 배가 침몰되는 위급한 순간에 신의주혁명의 정령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인민화하게 모시고 장엄한 최후를 맞이했으며 지난 3월 남양도 미제와 박근혜역적제당이 정세를 전횡정횡으로 몰아가고있던 때에 수시명명의 직명인공들과 직명원들이 조선인민군 입대, 목숨을 걸고서 헌명해나가는 우리 로동계급과 직명원들의 수명전투정신으로 뚜렷한 과시도 된다.

성과는 다음으로 직업동맹이 우리 당의 총로선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기본과업으로 뛰어넘고 힘있게 밀고나간것이다.

직명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직명원들속에서 사회주의정풍과 아간지현직명동맹대활동, 좋은일하기운동 등을 벌려 김일성경거강과 최전선으로, 미래과학자거리의 비범하여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 기여하였다.

경제강국건설의 핵심부대라는 긍지높이 무산, 혁신, 상헌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경제

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마다에서 로동계급과 직명원들은 7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고 200일전투에서도 생산정성들의 불파수를 앞어제기했으며 함복도 부부피해부구권에서 전위위부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할때 대한 당의 호소따라 피해부구권에서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성과는 다음으로 직업동맹이 당의 현명한 명도명령에 직업동맹조직들의 전투적기술과 역할을 백당으로 강화한것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직업동맹을 인민군대처럼 전투력있는 선군혁명대로 든든히 꾸리시어 《혁명조직으로 만들자!》는 구호를 제시하시어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도 직명조직들을 불러일으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업동맹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직의 전투력을 높이며 직명조직생활지도를 강화할때 대하여 밝혀주시고 동맹안에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총직으로 받아들여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체제와 규율을 세우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강화하여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를 비롯한 불후의 교린적명령들을 발표하시어 직명조직들의 기동과 역할을 높이는에서 나서는 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각급 직명위원회들에서는 직명인공단체를 든든히 꾸리고 그들이 맡은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교양사업을 펴고있는 한편 현직명원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여 직명원대중을 당의 무리에 굳게 묶어세우도록 하였다.

중앙과 도, 시, 군직명위원회 인공들이 아래 정성적으로 내려가 초급직명사업에서 걸린 문제를 풀이하고 배워주면서 초급인공들이 인민군대 지휘관처럼 모든 사업을 전투적으로 밀고나가기로 하였다.

이 나날에 충성의 모범초급단체, 모범초급직명위원회들이 수없이 늘어나 직업동맹대오가 든든히 꾸러지고 직명인공들의 사업기공과 일본에서 새로운 전황이 일어났다.

보고자는 오늘 직업동맹이 수령의 사상과 명도에 끝없이 충실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진체로 강화발전될수 있는것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직업동맹이 나아갈 길을 완히 밝혀주시고 걸음걸음을 손잡아 이끌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의 고귀한 정성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전체 대회참가사들과 온 나라 로동계급과 직명원들, 직명인공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적인 직업동맹건설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어 직업동맹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인 대중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기 위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었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승복한 뜻을 이어 직업동맹강화발전의 새로운 정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렸다.

26호모범기대장조영동들을 대중적기술혁신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킴으로써 이 운동의 거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첨단과제연구의 불길들 세차게 지퍼올려 우리 식의 지향전투를 개발하고 산소업법에 의한 주체혁명신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첨단기술로 장비된 현대적이고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만들어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직명원들의 학습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 한편 도서실, 문화선진실을 거점으로 씬있는 기공을 세워나가기로 하였으며 직업동맹의 기관지인 《로동자신문》을 강화해주는 한편 도서실, 문화선진실을 거점으로 씬있는 기공을 세워나가기로 하였으며 직업동맹의 기관지인 《로동자신문》을 강화해주는 한편 도서실, 문화선진실을 거점으로 씬있는 기공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일리와 학습을 생산문화, 생활문화의 거점대로 꾸러 우리 로동계급과 직명원들이 보다 유쾌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데 이바지하였다.

공중문화사업과 대중체육활동에 모든 로동계급과 직명원들을 적극 참가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펴고있어 그들이 혁명적이며 탁월적인 문화생활기쁨을 세우고 대중체육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였다.

성과는 다음으로 직업동맹이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로동계급과 직명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중요전투장소에서 진행한 직명인공들과 직명전진전진전진, 직총중앙로동자출신전진대의 힘있는 경제선봉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로동계급과 직명원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였다.

직명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직명원들속에서 사회주의정풍과 아간지현직명동맹대활동, 좋은일하기운동 등을 벌려 김일성경거강과 최전선으로, 미래과학자거리의 비범하여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 기여하였다.

경제강국건설의 핵심부대라는 긍지높이 무산, 혁신, 상헌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경제

동족대결과 악정으로 민족의 버림을 받은 역적패당을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자

민중은 개, 돼지가 아니다, 현 《정권》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박근혜와 청와대, 내각은 총사퇴하라

남조선 각계층이 역도년의 《개헌》주장과 《대국민 사과》를 극도로 심화 단호히 배격, 역적패당의 통치위기를 극도로 심화

남조선인민들과 우리 민족에게 친우관계를 두고 있지 못할 악악을 쌓아온 박근혜역도년과 그 패당의 통치위기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유신》파괴후치의 부활과 반인민적 악정, 동족대결과 사대매국에 피눈이 되어온 박근혜역도년은 최근 예비의 집권시기부터 제년과 지정관계를 가지고 남조선 정계에 깊숙이 개입해온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 등 최씨족을 몰아낸 박태형부정부패사건으로 인한 정치적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갖은 술책을 다하여왔다.

사건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다 못해 최순실과 그의 딸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부정부패의혹을 전면부정하는 등 어떤 권모술수로도 남조선인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게 된 역도년은 24일 《국회》연설에서 《대통령》단임제를 폐지하고 《헌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도년의 《개헌》은 그것이 나오자마자 이른바 《최순실》이든 《개헌》이든 어떤 의의도 없는 《개헌》으로 파멸의 임기를 끝까지 채우며 퇴임 후 재집권을 실현하기 위한 교활한 기만극이라는 남조선 각계의 단호한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남조선의 《JTBC》방송이 최순실이 버려

고 달아난 콧물처럼 박근혜의 연설문조각과 최순실이 그것을 수정한 많은 화일들을 찾아내어 공개하였다.

그간의 흥으로만 남아있던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실제한 사실로 증명되자 정계, 사회계, 언론계 등 남조선 각계가 분노로 들끓고있다.

《세월》호참사와 로동약정, 핵감기농민살해사건, 《사드》배치강행책동, 통일전선세력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 갖은 독선과 전횡 등으로 역적패당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와 원한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다.

이제는 박근혜의 《개헌》이 《최순실》이든 《개헌》이든 어떤 의의도 없는 《개헌》으로 파멸의 임기를 끝까지 채우며 퇴임 후 재집권을 실현하기 위한 교활한 기만극이라는 남조선 각계의 단호한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남조선의 《JTBC》방송이 최순실이 버려

고 달아난 콧물처럼 박근혜의 연설문조각과 최순실이 그것을 수정한 많은 화일들을 찾아내어 공개하였다.

그간의 흥으로만 남아있던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실제한 사실로 증명되자 정계, 사회계, 언론계 등 남조선 각계가 분노로 들끓고있다.

《세월》호참사와 로동약정, 핵감기농민살해사건, 《사드》배치강행책동, 통일전선세력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 갖은 독선과 전횡 등으로 역적패당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와 원한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다.

이제는 박근혜의 《개헌》이 《최순실》이든 《개헌》이든 어떤 의의도 없는 《개헌》으로 파멸의 임기를 끝까지 채우며 퇴임 후 재집권을 실현하기 위한 교활한 기만극이라는 남조선 각계의 단호한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남조선의 《JTBC》방송이 최순실이 버려

고 달아난 콧물처럼 박근혜의 연설문조각과 최순실이 그것을 수정한 많은 화일들을 찾아내어 공개하였다.

그간의 흥으로만 남아있던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실제한 사실로 증명되자 정계, 사회계, 언론계 등 남조선 각계가 분노로 들끓고있다.

《세월》호참사와 로동약정, 핵감기농민살해사건, 《사드》배치강행책동, 통일전선세력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 갖은 독선과 전횡 등으로 역적패당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와 원한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다.

이제는 박근혜의 《개헌》이 《최순실》이든 《개헌》이든 어떤 의의도 없는 《개헌》으로 파멸의 임기를 끝까지 채우며 퇴임 후 재집권을 실현하기 위한 교활한 기만극이라는 남조선 각계의 단호한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남조선의 《JTBC》방송이 최순실이 버려

고 달아난 콧물처럼 박근혜의 연설문조각과 최순실이 그것을 수정한 많은 화일들을 찾아내어 공개하였다.

그간의 흥으로만 남아있던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실제한 사실로 증명되자 정계, 사회계, 언론계 등 남조선 각계가 분노로 들끓고있다.

《세월》호참사와 로동약정, 핵감기농민살해사건, 《사드》배치강행책동, 통일전선세력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 갖은 독선과 전횡 등으로 역적패당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와 원한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다.

이제는 박근혜의 《개헌》이 《최순실》이든 《개헌》이든 어떤 의의도 없는 《개헌》으로 파멸의 임기를 끝까지 채우며 퇴임 후 재집권을 실현하기 위한 교활한 기만극이라는 남조선 각계의 단호한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남조선의 《JTBC》방송이 최순실이 버려

고 달아난 콧물처럼 박근혜의 연설문조각과 최순실이 그것을 수정한 많은 화일들을 찾아내어 공개하였다.

그간의 흥으로만 남아있던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실제한 사실로 증명되자 정계, 사회계, 언론계 등 남조선 각계가 분노로 들끓고있다.

《세월》호참사와 로동약정, 핵감기농민살해사건, 《사드》배치강행책동, 통일전선세력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 갖은 독선과 전횡 등으로 역적패당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와 원한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다.

이제는 박근혜의 《개헌》이 《최순실》이든 《개헌》이든 어떤 의의도 없는 《개헌》으로 파멸의 임기를 끝까지 채우며 퇴임 후 재집권을 실현하기 위한 교활한 기만극이라는 남조선 각계의 단호한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남조선의 《JTBC》방송이 최순실이 버려

남조선의 민주로총 시국성명 발표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25일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라》는 제목의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누구에게 붙여야 할지 알 수 없게 박근혜, 최순실일파의 국정총탄이 지경을 넘어섰다고 단죄하였다.

《대통령》의 임기일몰을 보고 말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최종결정하며 수정헌자가 최순실이라는 것이 어찌되었든 사실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21세기에 봉건왕조시대의 성정이 부활한 것이라고 개탄하였다.

성명은 《대통령》의 말인으로 위조된 말 한마디에 전권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민중은 최순실에게 이런 지위와 권력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심도하였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국정을 좌우해온 것이라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민중의 권리를 유린한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청와대는 민중을 기만하지 말라.

최순실정권력에 대해 민중이 경악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침묵하고있다.

외신들은 박근혜정권의 정치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으므로 박근혜정권이 정치복합이 일어나고있다고 평하였다.

외신들은 박근혜정권의 정치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으므로 박근혜정권이 정치복합이 일어나고있다고 평하였다.

외신들은 박근혜정권의 정치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으므로 박근혜정권이 정치복합이 일어나고있다고 평하였다.

김종필이 박근혜정권 퇴진시키자

김종필이 박근혜정권 퇴진시키자

남조선대학생들 괴뢰국회앞에서 기습시위, 여러 지역에서 괴뢰집권자퇴진을 위한 투쟁 전개

【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민들이 26일 서울의 소위 《국회》의 회의를 28일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여러 지역에서 권력형부정부패행위의 주범인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는 데 앞장서서 투쟁을 전개하였다.

박근혜탄핵 대학생운동본부 소속 대학생들은 《국회는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대형현수막을 펼쳐서 《박근혜를 탄핵하라!》, 《최순실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괴뢰국회앞에서 기습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자들은 회피하게 감지되었던 박근혜의 탄핵을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권력층으로 실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음에는 《문서부속》에 대해 일일투쟁하였다. 시위 편파적인 박근혜가 이제 와서 일부 언론과 선전물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들은 박근혜가 거짓말을 달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라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사유화된 권력이 국정을 좌지우지함으로써 결국 《국회》는 물론 청와대에도 심지가 어둡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23일 남조선의 각계층이 박근혜의 탄핵을 강제로 부강하려고 달려드는 괴뢰경찰에 맞서 완강한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부강령장집행의 마강남자인 25일 서울에 이른 이날 아침부터 괴뢰경찰은 부강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의 강제입원을 시도하였다.

80여명의 형사들을 긴급 투입한 괴뢰경찰은 그것도 성취하지 않아 그 후 《우발상황》에 대처한다는 것을 구실로 800여명의 파초경찰을 주둔해 배치하여 심한 탄압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박근혜의 탄핵을 지지하고 있던 시민사회단체 성원들과 종교인들, 경찰의 강제부강령 동소식을 듣고 달려온 많은 시민들, 학생들을 포함한 군중이 강제부강령을 막아낸 집결현황의 지로 병원밖에서 경찰과 대치하였다.

강제입원장에서는 박근혜정권 성원들이 의사술로 몸과 몸을 연결하여 저지선을 형성하고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목에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시민, 종교인, 학생들은 《살인정권 규탄한다》, 《우리가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는다》 등의 손수호를 들고 경찰의 진압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투쟁을 벌였다.

그들은 경찰의 부강령장집행은 박근혜정권 주된 축이

박근혜정권 퇴진시키자

박근혜정권 퇴진시키자

불순한 속심만 드러낸 《종북》모략소동

불순한 속심만 드러낸 《종북》모략소동

파쇼경찰 백남기농민의 시신에 대한 강제부검 시도, 각계층이 결사적인 항거로

파쇼경찰 백남기농민의 시신에 대한 강제부검 시도, 각계층이 결사적인 항거로

강제부검 시도, 각계층이 결사적인 항거로

강제부검 시도, 각계층이 결사적인 항거로

부강령장 집행에 맞서

부강령장 집행에 맞서